



사불상에 '지장보살 나투시네'

"올바라마리다니사바하..."
(지장경)을 읊어 쓰기도하고 지장왕보살을 갖지 색상으로 칠하고 있는 보살들은 '사경삼매'에 흠뻑 빠져있다. 손대면 물어날것 같은 쪽빛 가을 하늘아래 울긋불긋 치장한 단풍들이 제 빛깔을 뽐내는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에서 21일 열린 지장왕보살 김교각스님 기념관 개

관기념 사경·사불대회장. 60여명의 불자들이 스님의 원력을 되새기고자 <지장경>을 쓰고 지장왕보살을 채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지옥 비기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스님의 서원을 다짐하는 표정이다.



김주일 기자

교차로

회계사 대적광전 준공법회

승신 회계사 주지는 20일 '대적광전 준공 및 3존불 4입상 집안법회'를 봉행했다. 3층 건물 대적광전은 요사채, 국제선원,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중 서회원 방언단 점견

태음 불교 TV 사장 스님은 21일 중국 향주 원종서회원 양순강 상무 부원장과 소덕수 부원장의 내방을 받고 사제자문 4점과 독

수리 그림 등 5점을 기증받았다.

경찰의 날 감사패 받아

설정 조계종 총회위원장 스님(사진 위)과 동성 마산 불교사 주지(동부경찰서 경순실장)는 21일 제5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모범적인 경순실은

영과 활발한 경순실은 등의 공로로 김형진 총남지방경찰청장과 마산 동부서장으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오명씨 초청 '정보화'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4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제로 90주년 기념 문화관에서 오명 동아일보 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불교병원에 친민원 기탁

황규선 신한국당 의원은 23일 동국대에 경기도 일산에 추진중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제1회 동국예술제 개최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은 28일 동국대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제1회 동국예술제를 개최했다.

전신신문 경영인 세미나

한기호 한국전신신문협회장

은 11월 7~8일 '정보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20회 전신신문 경영인세미나를 갖는다.

총북대서 구들학회 세미나

최영택 구들학회장은 27일 총북대에서 '새 주거문화생활을 위한 구들학회 세미나'를 가졌다.

대부도 동지소년의 집 방문

김인택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청회장은 11월 1~2일 대부도 동지소년의 집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친다.

세종문화회관서 공연

김영림 국악인은 30일 오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회심곡'을 중심으로 '97 김영림 소리' 공연을 마련한다.



전신주 없이 전기사용 수덕사 전력설치 화제
예산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사찰환경의 미관을 해치는 전신주(電信柱)가 없는 전력공급 시설을 수덕사에 설치해 화제다. 8월 25일부터 10월10일까지 경내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를 해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로 인해 수덕사는 65본의 전주와 2.9Km의 지상에 설치된 전력설비가 철거되고 입구에서부터 정혜사까지 모든 전력설비가 지하로 매설됐다.

북한사찰 해방전 자료 수집을

지현정사 '북한불교 동향과 통일...' 강연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질 충격을 감안할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도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스님)이 21일 주최한 '민족불교학당'에서 '최근 북한불교계의 동향과 통일의 길'을 주제로 강의한 진각종



대금강승선무 회주 원옥스님과 소림사 선무지도자 석덕건스님이 교류협약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대금강승선무 소림사와 결연

우리나라의 대금강승선무 사 무들이 손을 잡았다. (회주 원옥스님)와 중국 소림 대금강승선무 회주 원옥스



임연태 기자

이밖에 지현정사는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한 남한 불교단체의 시각지원은 조선불교도연맹의 북한내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실정과 관련, "중앙당으로부터 조선불교도연맹 소속 직원의 급여를 자체조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태"라며 "공명심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승적 사상에 입각한 남북교류의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현정사는 18~25일까지 일시 귀국했다.

김정은 기자

남은 사범 20여명과 7일 소림사를 방문,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합동무술대회와 사범교류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소림사 인근의 무술학교와 교류해 왔으나 소림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협약체결에 앞서 펼쳐진 양국 선무도 시범에서 소림사의 선무지도자 석덕건스님은 "한국의 선무는 중국선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석덕건스님은 소림사 영화당 선무의 19대 전수자로 현재 소림무술의 최고지도자다.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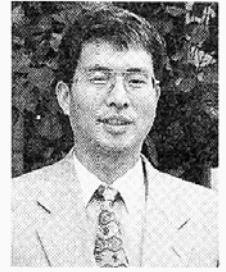
"장인정신으로 옛도자기법 재현"

화관문화훈장 받은 도예가 이은구 씨

"우리나라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활발하게 세계에 알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애진하라는 격려와 책점으로 생각합니다."

20일 문화의 날 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을 영예를 안은 도예가 청과 이은구씨(54, 이천 문화원장)는 연신 감사할 따름이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이씨는 든든한 불심과 장인

정신으로 30여년째 분청사기만을 빚어 왔다. 또 11년 전 이천도자기추체를 처음 기획해 군에서 도, 도에서 전국축제, 세계축제로 발전시킨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이천을 세계적인 도자기문화의 메카로 관공코스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흙을 다져 그릇을 빚고 가다듬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빚고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웅골찬 도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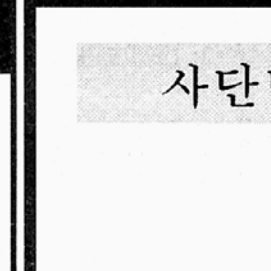
"불교방송 전산화 도움 됐으면..."

전자장비 7천만원어치 기증 최강녕 사장

만 제가 불자여서 보시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컴퓨터 하드 유지 보수 전문업체인 (주)토탈테크 최강녕(39) 사장은 7천만원 상당의 전자호스트 장비를 21일 불교방송에 기증했다. 불교방송은 이 전자호스트 장비를 경영중합정보망(MIS)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사장은 불교방송의 전자호스트 장비가 두 대가 됨으로써 행정전산망 구축의

고유기능 전승자 6명 선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재석)은 19일 금박입히기 기능보유자 김익홍(만다라불교 미술실 대표)씨와 구리 청동 쇠 착색 기능보유자 추용근(전통공예사 대표)씨 등 6명을 올해의 고유기능전승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최고 수준의 전통기



김지연 기자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불교방송 전산망이 미비한 것이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계가 불교방송 전산화와 나아가 인터넷 방송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사장은 이날 말 불교방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김지연 기자



ABU 총회 참석자 와우정사 참배

열반종(총무원장 해근)은 21일 용인 와우정사에서 '제34차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서울총회'에 참석한 50여개국의 방송대표들을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한 일본 NHK, 호주 ABC, 필리핀 RPN 등 30여명의 대표들은 와불, 청동미륵불가사유상, 통일법종 등을 비롯 경내를 참배했다. 참석자들은 "고요하고 기품있는 한국의 산사를 참배하게돼 기쁘다"며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와우정사는 참석자 모두에게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된 안내책자를 선물했다. (근)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안상 도안사 1,156,500원 △불교문화 204,930원 △부산 등 의대 한의학과 170,000원 △서초정토법당 100,000원 △불교어머니회 27,400원 △수곡 이장욱 1,000,000원 △이충경 600,000원 △양영우 200,000원 △혜만스님 120,000원 △마경숙 120,000원 △신태호 120,000원 △정승미 110,000원 △서불순 100,000원 △김경희 100,000원 △이광형 100,000원 △백종민 100,000원 △장준분 50,000원 △박준자 50,000원 △장보혁 50,000원 외 △한기 옮기운동 1,295,000원 (22일 현재 총 843,800,52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경도대회

1.대회명 :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경도대회
2.대회주제 :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
3.날 자 : 1997년 10월 26일~30일(4박5일)
4.장 소 : 일본 경도 임정교성회 경도지회 모란관

5.취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각·각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과거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문화 교류였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고승들의 구도행자와 포교, 사상교류와 전파, 불경과 문물종교의 인적, 문적 교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불교의 우수인 문화와 제도들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라 원로종 해이립수 없는 고승대덕들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불교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교착적이며 보완적인 우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국 불교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국 불교계는 96년 5월 중국 북경에서 1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차대회는 서울에서 각계의 축하와 불교계 종단 지도자들의 참여에 성대의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에 3차대회는 한국불교 종단지도자 200여명과 일본 중국 불교계 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경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도모하고 인류구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이에 수반되는 난민구제, 환경보존, 인적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립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문화질서를 구축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21세기에 석존의 가르침을 세계로 퍼뜨리는 3국 불교도의 역할과 사명을 공고히 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6.목적
가) 한·중·일 삼국불교도 우호교류를 통해 3국 민간교류 확대에 기여
나)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 정착 노력에 일조
다) 3국 불교문화 교류와 제반 문화, 정보교류 활성화
라) 유학생 상호 교환등 인적자원 양성
마) 동북아 불교의 연대활동을 통해 지구촌 난민구제, 환경보존사업 등 대사회적 공동 사업 적극 추진
바) 3국 불교에 대한 이해증진
사) 3국 공동사업과 평화운동, 환경보존, 문화교류 등을 통해 공존공영의 의식고취와 계몽

7.참가인원
○한국-200명내-본부단(대표 및 실무, 수행요원) : 60명, 참관단 : 140명
○중국-200명내-본부단(대표 및 실무, 수행요원) : 60명, 참관단 : 140명
○일본-200명내-본부단(대표 및 실무, 수행요원) : 60명, 참관단 : 140명

8.대표단 조직
▶ 대표단장 :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
▶ 고문 : 석주 조계종 원로, 청야 풍도사 부방장, 법종 원효종 종정, 대한 관음종 종정, 박형철 천태종 참의위원장
▶ 부단장 : 인국 대교종 총무원장, 원서 종단협의회 상임부위원장, 윤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호 진각종 총무원장, 지화 중앙승가대 총장
▶ 집행위원장 : 흥과 관음종 총무원장
▶ 대표 : 성타 조계종 포교위원장, 태연 제인종 한민족불교도연맹의회장, 원근 조계사 주지, 철혈 쌍계사 주지, 배창 조계종 총무원장
▶ 동광 도선사 주지, 무성 봉선사 주지, 광우 전국비구니회 회장, 우남 대교종 교무과장, 배광 대교종 재무부장, 김산 천태종 감사위원장, 임정 진각종 교육위원장, 배중 관음종 원로위원장, 배정 관음종 총무원장, 무진 원효종 총무원장, 임광 원효종 종정, 대호 대한법파종 총무원장, 법종 보문종 부위원장, 도광 총지종 법장위원장, 지명 조동종 승정위원장, 금광 진언종 총무원장, 무왕 일명종 총무원장
▶ 부위원장 : 도가 한일불교교류회의의 사무처장
▶ 집행위원 : 동관 조계종 사부부장, 성관 조계종 교법부장, 성광 조계종 사부위원장, 지성 대교종 총무원장, 자원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 국성 천태종 총무원장, 효암 진각종 문사부장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송월주
사무국: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402호 전화 02)732-4885 FAX 02)737-7872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자비원

고문 : 인현
총재 : 석봉

부총재 : 성타 능선
이사장 : 송산
상임이사 : 법성
이사 : 김학규 이해상
김성겸 우제형
기용우 이종우
김상현
감사 : 대원 신덕균
복지봉사위원장 : 성용
문화원장 : 원표
연수원장 : 백담
총무부장 : 경신
교무부장 : 진웅
사회부장 : 혜월
재무부장 : 보성
복지봉사부장 : 법운
문화부장 : 상호
연수부장 : 담원
봉사국장 : 강현

대의원 : 영복 창호 형래 정호 혜진 혜민 혜성 종진
지성 두하 대원 원광 원공 범륜월 무월심
김숙희 순채 보현행 자명 보현(무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0331)262-1577, 263-1353